



Center for Ambitious Failure

KAISTian Story - 공모전 수상작

관점을 바꾸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000 | KAIST 기술경영학부

나의 길은 끊임없이 나의 나약함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인간적인 고뇌와 동행하는 시간들이었다.
나를 단단히 붙잡고 싶은 마음은 자주 소풍 중이었고,
그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쓰러지지 않으려고 그저 버티는 시간들이었다.
방향과 동력을 잃고 주저앉아 있다면 실패이지만, 반드시 내가 돌아갈 자리가 있고,
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란 믿음이 있다면 현재는 소풍 중인거다.
남들보다 많이 늦고, 많이 돌아왔다고, 장애물이 많다고 좌절감이 들 때
나는 아이가 말해줬던 ‘소풍’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거실장 경험의 나사가 빠져 있었다. 덜그럭거리며 열고 닫히는 것이 부자연스러웠다. 몇일 전 나사가 헐거워 보이고, 빠질 것 같아서 경험에 단단히 박아 뒀던 터다. 빠그덕거리는 경험을 보니 갑자기 짜증이 올라왔다. “집에 성한 게 하나도 없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아이가 말했다.

“그 나사 소풍 갔나 봐.”

10년전 석사를 졸업하던 해에 둘째를 가졌다. 첫째를 키우며 대학원 생활을 하던 나는 졸업 후 취직할 생각에 설레고 있었다. 힘겨웠던 논문 심사를 끝내고, 워킹맘으로 연구소나 회사에서 일을 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러나 임신한 상태로 면접을 보러 다닐 수 없었고, 석사 졸업 후 약 5년간 사회와 단절된 채 두 아이를 키우며 주부로 살게 되었다. 육아는 기쁨도 주지만, 철저한 고됨도 수반된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맘대로 할 수 없었고, 하루 24시간이 어찌 가는 줄도 모르게 바빴다. 점점 나는 사회와 멀어지고 있었고, 이대로 사회인으로서의 인생은 실패구나 하고 우울감에 빠졌다.

그때 아이의 한마디가 나를 깨웠다. 나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있다. 나사가 소풍을 끝내고, 경험에서 제 역할을 하러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 나도 사회인으로의 실패가 아니라, 어쩌면 나사처럼 잠시 인생의 소풍을 나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다시 취직준비를 시작했다. 취직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니, 토익 점수가 필요했다. 아이를 재워 놓고, 툼툼이 토익 문제집을 풀었고, 아이 열이 40도가 오르내리는 어느 날. 간호하며 밤을 샌 다음날 토익 시험을 보러 갔다. 자기소개서를 쓰고, 원서를 내고, 서류전형,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문자를 수도 없이 받았다. 우연히 한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연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SCI, KCI 논문을 출판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깨우고, 출근준비를 하는 전쟁 같은 아침시간, 연구소에서의 업무, 시간을 쪼개 개인연구를 하던 일상. 나는 또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지금은 연구소를 그만두고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데 교박 10년이 걸렸다.

나의 길은 끊임없이 나의 나약함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인간적인 고뇌와 동행하는 시간들이었다. 나를 단단히 붙잡고 싶은 마음은 자주 소풍 중이었고, 그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쓰러지지 않으려고 그저 버티는 시간들이었다. 방향과 동력을 잃고 주저앉아 있다면 실패이지만, 반드시 내가 돌아갈 자리가 있고, 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란 믿음이 있다면 현재는 소풍 중인거다. 남들보다 많이 늦고, 많이 돌아왔다고, 장애물이 많다고 좌절감이 들 때 나는 아이가 말해줬던 '소풍'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100여년전에 영국에서는 투표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 개발도상국에서는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들이 50~60년 전에는 테러리스트라고 불리었다. 35년간 말과 글, 생각과 행동을 일본에 의해 제약 받고, 착취당하던 한국은 지금 갤럭시 시리즈로 애플과 대적하고 있다. 어린시절 부모님의 이혼 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한때 마약에도 손을 대는 등 불행한 청년시절을 보낸, 유색인종이라는 사회의 건조한 시선 속 편견을 온몸으로 버텨내던 남자는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된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은 버티고, 살아내고, 싸우다 보면 현실이 된다.

BC 200년쯤 어느 해, 도덕경을 읽고 깊이 감동한 한 일본 승려는 일본어로 도덕경을 번역 출간할 계획을 세운다. 번역과 인쇄, 출판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10년이 걸렸다. 그러다 일본내 역병이 돌아 그 돈으로 국민들을 구휼했다. 다시 또 돈을 10년 동안 모았다. 그때 일본에 지진이 발생했다. 역시 지진피해와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 돈을 썼다. 다시 10년을 모아 일본어로 된 '도덕경'을 출판했다. 도덕경을 편찬하는데 당초 계획인 10년이 아닌 30년이 걸렸지만, 사람들은 그가 도덕경을 3번 편찬했다고 칭송했다.

아이 넷을 양육하다, 마흔의 나이에 장편소설 공모전을 통해 '나목'이라는 소설로 작가의 길을 시작한 작가 박완서. 공모전에서 상을 받긴 했으나, 심사위원들은 그녀가 이 하나의 작품만을 남기고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박완서 작가는 등단 후에도 그 당시의 비관적 예언에 흔들리면서 불안해했고, 원고의뢰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썼다. 누가 알아주던 말던 쓰고 또 썼다. 어쩌면 그때가 그녀는 실패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글을 쓰는 과정, 창작의 시간을 살며, 완성되어 가는 작품과 그녀는 점점 단단해져 가고 있었다. 2011년 대통령은 그녀의 문화적 업적을 기려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소작농의 아내, 농가의 가정부로, 시골 주부로 10명의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던 미국의 한 여인은 72세대 관절염으로 바느질을 하지 못하자 대신 붓을 들었다. 미국의 시골풍경, 역사적인 사실들, 문화 및 풍습 등을 밝고 따뜻하게 그려내던 모지스. 그녀는 미국국민 화가가 되었고, 그녀가 남긴 작품의 3/1은 100세 이후에 남긴 것들이다. 그녀가 붓을 들은 계기는 남편과, 10명중 다섯아이의 죽음이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녀는 그때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았을 것이다.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그 실패에 묻히지 않았고, 그림이라는 새로운 빛을 통해 자신을 사랑했다.

나의 영웅들이다. 내가 소풍을 나와 있는 동안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줬던 가슴 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나도 용기를 얻었다. 빛과 그림자는 늘 함께 하고 있다. 그 누구도 어두운 그림자 없이 빛나는 시절을 만날 수 없다. '밝음'이란 '그늘'이 만들어낸 눈의 착시현상일 뿐이다.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듯, 또 그 실패와 현재는 유기체와 같아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움직인다. 그것이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다.